

노동계 원로 및 노동분야 전문가 3명, 경사노위 자문단 위원으로 새롭게 합류

장석춘 前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기권 前 고용노동부 장관, 임무송 숙명여대 교수 참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장석춘 前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기권 前 고용노동부 장관, 임무송 現 숙명여대 교수를 신규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자문단은 지난해 12월 1일 노동시장 주요 현안과 경사노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분야 원로들을 위촉해 발족한 기구로 신규 위원은 8월 17일 10차 회의부터 참여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새롭게 참여하는 위원들이 노동 분야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분들인 만큼, 노동개혁과 경사노위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고견을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자문단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사노위, “계속고용 논의에 한국노총 참여해 달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한국노총의 정년연장 국민동의청원에 대해 8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노총은 하루 빨리 경사노위에 복귀해 계속고용 관련 여러 의제들에 대해 노사정이 함께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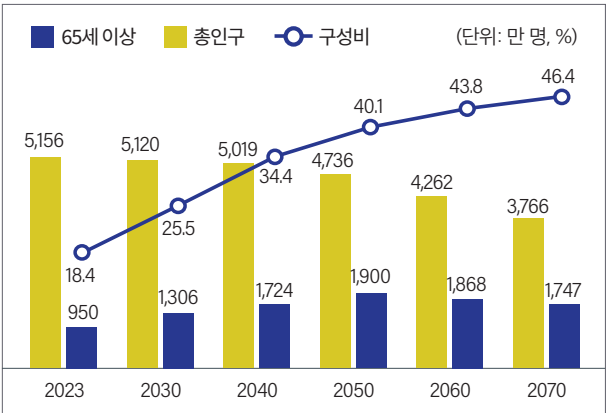
당초 경사노위는 노동계가 참여한 가운데 노사정 사회적 논의를 요청했으나, 한국노총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이후

7월 27일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발족하고 임금 체계 개편과 연계한 고령층의 계속고용 문제를 논의해왔다.

또한 경사노위는 자료를 통해 “베이비붐 세대 비중이 큰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에 잘 대처하지 않으면 성장률 저하는 물론, 국가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며 고령층의 계속고용 논의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령층이 계속 일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나, 노동계 주장처럼 단순히 법으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큰 장벽과 절망이 될 수 있다”며 “기업은 임금의 연공제적 성격이 강하고, 해고 제한 등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한다”고 덧붙이며 재차 경사노위 복귀를 강조했다. [eslc](#)

▼ 고령인구(65세 이상) 및 비중



* 자료출처: 통계청, 2023 고령자 통계

